

# “시민마음 돌봐요”... 광주시, 정신건강 바우처 시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예산 9억7800만원을 편성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은 별도 검사 절차 없이 등록증명서만 소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2289명의 시민에게 총 1만6289건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전문심리상담·시민편의성 개선... 작년 1만6289건 성과

우울·불안 시민, 10·29참사 등 사회적 재난 유가족 지원

고 인정한 시민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시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자 등이다.

10·29이태원참사, 12·29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겪은 본인 또는 유가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해 전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1회당 최대 4만원을 부담하면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의뢰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갖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북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상담 기관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나 선택할 수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 광주시, GCC사관학교 교육생 100명 모집

3월27일까지 3기 선발해 문화콘텐츠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 100명을 오는 3월27일까지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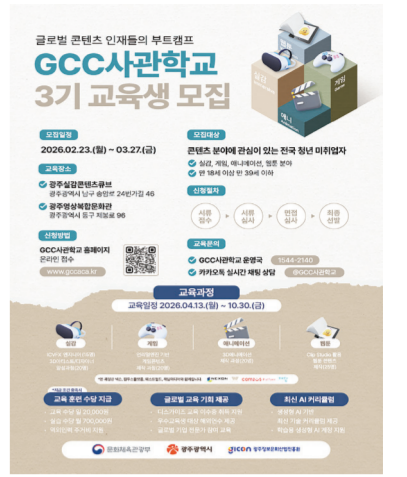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전문인재 양성교육 플랫폼으로, 현장 중심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콘텐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GCC사관학교는 경쟁률이 1기 2.6대 1, 2기 3대 1로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GCC사관학교는 탄탄한 교육과정을 통해 1기 132명, 2기 106명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기업 연계 팀프로젝트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역량을 길러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웹툰 문화콘텐츠 4대 핵심 분야를 특화해 운영하며, 기업 연계 팀프로젝트 직무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실제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과정에 적용한 최신 기술 기반 교과과정(커리큘



럼)을 도입해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 융합 인재를 육성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3기 교육생 모집은 GCC사관학교 공식 누리집(https://www.gccaca.kr)을 통해 진행하며,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전국 청년 미취업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4월3일 최종 선발한다.

교육은 4월13일 개강해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이승원 기자

광주 동구는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복지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동구 마을복지.ZIP’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복지.ZIP’은 주민이 생활 속에서 복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웃과 소통하며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구 대표 마을복지사업이다. 올해는 ▲이웃 간 안부 인사 캠페인 ▲우리동네 복지 홍보단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주민참여형 ‘마을복지.ZIP’ 3월부터 본격 추진

내 손안에 AI 교육·생명지킴이 등 생활밀착 복지서비스 제공

특히 올해 중점 추진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은 각 동 마을사람체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학당에서는 ▲스마트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활정보 검색 및 복지서비스 안내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합리적 소비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안심 교육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복지 이해도와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동구는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철수 기자

또한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사업을 통해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마을사랑채 등 주민 생활공간에서 캘리그라피, 모무공예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우리동네 복지홍보단’ 사업을 통해 전동, 수도꼭지 교체 등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웃 간 정 나눔·안부인사 캠페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따뜻한 마을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철수 기자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 처음 발급돼 단 6일 만에 완판됐던 북구의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올해도 발행된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부끄머니 발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광주상생카드(할인율 10%) 보다 5% 높은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올해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만 14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인당

## 북구, 부끄머니 80억 발행... 15% 할인 혜택

작년 발행 부끄머니 사용률 76% 돌파... 생활 밀착 업종 주로 소비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금액별(3·5·10·20·50만 원)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이번 해 북구는 부끄머니 사용 활성화와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북구 소재 광주은행(18개소)으로 한정됐던 부끄머니 구매처를 광주

전역(67개소)으로 확대했다.

또한 부끄머니가 신속하게 골목상권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1인당 보유 한도를 전년도 발급 잔액 포함 50만 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2만 개가 넘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고 추가 확보에 나서는 등 북구 전역에서 부끄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발행 첫날인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북구청 광장에서 ‘부끄머니 출장버스’를 운영해 현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도 부끄머니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25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및 직무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 서구, 맞춤형 장애인일자리로 사회참여 확대

정리수납 사업 확대, 일회용품 모니터링 사업 신규 발굴

써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반형(전일제·시간제)과 복지일자리(참여형) 등 다양한 일자리에 지체, 청각·언어, 시각 장애인 등 16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리,

우편물 분류, 급식 지원 등 공공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 주민 호응이 높았던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정리·수납 특화사업은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사업을 새로 발굴·추가하는 등 직무 영역을 넓혔다. 또한 ‘착한도시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 개선, 직장 내 의사소통 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석우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동역단체장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통합은 미래 성장동력을 얻는 중요 수단”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1일 신년회견에선 “수도권 일극 타파를 위해 초광역 모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 정부에서 5극3축으로 완성해 줄 것”을 간청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1 더하기 1이 2에 그치지 않고, 3 이상이 돼 광주·전남 대부흥 역사를 활짝 열어나자”고 말했다. <판도라 상자> 수두룩,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특히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제 일부 지방세 전환, 자치구(區) 보통교부세 적교부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진 채 ‘선(先) 통합, 후(後) 보완’으로 개문발차한 점은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난제인 주(主) 청사 문제를 비롯해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광주시의원 증원,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 반발, 학교 불균형, 대도시 율령(빨대효과),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군사시설 이전 초과사업비 국가지원 의무화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를 특별시 내로 확대하는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관가에선 특별법 통과 후 통합 특별시 출범 전까지 4개월을 ‘연착륙 골든타임’으로 보고 “콘트론타워 가동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식장과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교통, 개발, 복지, 산업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